

(재)순천문화재단 2024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작

Limited Edition Exhibition

Artist: Lee Seol Je

특별하

Make a special

attempt

수도

2024.6.13.^{THU} _____ 6.19.^{WED}

하얀
Gallery
minimalism

Gallery HAYAN

후원



은밀한 착시 [*Secret optical illusion*]

은밀한 착시 [Secret of Optical Illusions] 시리즈는 시각의 영역에서 총동이 여러 겹침으로 나타난다. 일차적으로 화면의 상(像)에는 확대된 꽃의 윤곽이 잡힌다.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면 경계선이 흐릿한 여체의 실루엣이 칼라(calla)의 윤곽 너머에서 아른거린다. 꽃을 뒤로 풍성한 여체의 실루엣이 감상자의 심상에 따라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은 감상자의 또 다른 심상을 자극한다. 다양한 꽃의 형태와 모양과 그것에 대비되는 풍성한 여체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감상자의 풍성함과 대비되는 꽃이 될 수도, 꽃속에 감춰진 여체를 보면서 꽃이 곧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자아 스토리 텔링을 만들어 낸다.

결코 단순하고 명쾌한 화상(畵像)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작업들이다. 작가의 의도적인 미적거리(시간과 공간)를 두고 감상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시험한다. 여체의 실루엣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두 화상이 겹치는 순간, 관람자의 심중은 흔들린다. 여체에 녹아든 배경 전체가 꽃 형상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거나, 그 반대로 꽃 자체의 형상이 에로스의 신비감을 지향하게 한다. 작가와 감상자의 응시가 겹침으로 더 극적인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작가는 초점이 어느 정도 흐려지는 범위 안에서, 초점(focusing)에 맞는 범위(in/out)에 교차점을 가지고 흐려지는 원근법을 즉 “공간 원근법”을 만들어 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보았을 때, 본 사람 입장과 소위 말하는 렌즈라는 범위에 상이 맺히는 거리와 피사체와의 거리가 형성된다. 작가의 의도된 ‘거리두기’는 감상자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 화상의 여러 겹침으로 남는다.

은밀한 착시 [Secret of Optical Illusions] 작업은 그 시작은 19년 전부터다. 작업은 작가의 시각에서 익숙한 시점이 형성되고, 회화적 질감에 따라 상은 극적인 효과를 발한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은 작가의 철저한 계산의 결과다. 감상자는 공간과 거리 사이에서 공간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법을 나는 “‘흐림 원근법’이자 ‘공간 원근법’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술에서 ‘일루션(illusion)’과 같은 역할을 한다.



Limited Edition Exhibition / Artist: Lee Seol Je

현대인의 미학적 진화 [*Dot-sapiens*]

“슬기로운 사람” [*Homo sapiens*]

하나의 단순했던 피조물은 시간이 갈 수록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1758년에 칼 폰 린네가 명명했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라틴어로 ‘현존하는 인류’로 출발했다.

현대에 이른 지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진화라고 부른다. 마치 직립보행 하는 단순한 생명체였던 인류가 현대에 이르러, 생각하는 인류가 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의 수 만큼 다양한 관점의 세계에서 살게 된 것처럼...

현대인에게 또 다른 진화는 무엇일까?

인간적 소통과 상호 인식의 모호함이라는 경계에 서있는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때로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 극히 에고이스트적인 인간들의 각각의 모습과 새로운 시대의 욕망,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키워드는 상업주의이다.

1960년대 미국과 영국에 등장한 팝 아트는 대중문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으며 미국의 팝아트는 극단적인 작가주의인 추상표현주의로 진화한다. 따라서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발전해가며 현대의 극한 상업주의 속에서 에고이스트적인 성향에서 모호성 [ambiguous]으로 진화된다.

“현대인의 미학적 진화”란?

팝아트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팝아트의 지나친 상업주의에 의한 지나친 색채가 만들어 졌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의 시그널이 되었으며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과 크로스 오버를 통하여 다극적인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의 다양성과 더불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협업

이라는 의미로 최근 상업주의의 새로운 트렌드로 이어지고 문화 예술에서도 다양한

글로벌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 사회의 진화속에서 현대인의 진화는

이러한 틈새 속에서 그들의 실루엣은 모호성이라는 새로운 DNA를 갖게 된다.

그러한 모호성 속에서 수반되는 소통의 부재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한계적 갈등을,

최소한의 미학적 희망을 넣어 현대인의 모습을 작가적 시각의 아이덴티티로

“현대인의 미학적 진화”로 표현하고자 한다.



Limited Edition Exhibition / Artist: Lee Seol Je

자아도취 [*narcissism*]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서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Narcissos)라는
미소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프로이트(Freud)가 이 말을 정신분석학에서 자아의 중요성이 너무 과장되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지칭하였고
이를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가 1899년에 용어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나르시시즘적 주체는 무엇보다도 성공을 추구한다.

그에게 성공은 타자를 통한 자기 확인을 가져다주며
그것은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업적 프레임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트랜드 아이콘으로 재구성되며, 나르키소스가 그랬듯이 명품샵의 쇼윈도우안의
마네킨을 본인의 모습으로 리프렉션 된다.

그러한 현상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쇼윈도의 마네킨을 동경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능동적 노력을 한다.

작가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 사회에 있어 여성을 긍정적 측면으로 재해석하며
이것을 현대사회의 새로운 소설-나르시시즘이라 해석한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을 작가는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로 포토콜라주 형태로 재구성하여
현대 여성의 심미적 나르시시즘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한 사진작업이다.



Limited Edition Exhibition / Artist: Lee Seol Je



이설제 Lee Seol, Je

work studio 전라남도 순천시 호남1길 50
 e-mail buz2u@naver.com
 web page <https://www.facebook.com/seolje.e>
 Cell phone +82 10 8577 0533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졸업

강의 경력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
 백제예술대 / 순천대학교 / 한려대학 / 동신대학교 / 중부대학교 출강

프로젝트 / 문화 프로젝트

2008 광주국제인권퍼포먼스 총괄예술국장
 2014 강원도 평창 향수 프로젝트 (주)힐링네이처
 2016 (주)리노셀 플라랩(PLALAB)
 <마유크림> 화장품 개발 프로젝트
 2017 화순 햇살식초 움 식초비누 개발
 2017 화순설치미술제 총감독
 2018 광양시 도시재생 <549프로젝트> 감독
 2019 광양아트옥션 총감독
 2020 공공미술 고흥 총감독
 2023 나주 천연염색패션쇼 기획 및 연출

전시경력

2024 부산 롯데백화점(센텀) 초대전
 2024 부산 허먼 갤러리 전시
 2023 광주 브리티 갤러리 개관 초대전 "DOT-SAPIENS"
 개인전 "neo Dot-sapiens 현대인의 미학적 진화 II"
 전남미술협회 "영호남상생교류전"
 2022 2022 군산아트쇼 초대전 (군산, 새만금컨벤션)
 개인전 "2022 dot-sapiens" (순천, 갤러리 하얀)
 순천문화재단 기획전 "아름다운 중독 [poison]"
 2019 광양아트옥션 총감독
 2018 광양 문화도시 재생 549프로젝트 감독
 2017 화순설치미술제 총감독
 2016 담빛 갤러리 그룹전시(전남, 담양)
 2015 갤러리 무등 갤러리 "fashion + photography
 콜라보레이션 기획초대전"(광주)
 2015 부산 국제 아트페어(바나나룸 갤러리, 부산)
 2015 대구 국제 아트페어(갤러리 퍼즈)

2014 대구 국제 아트페어(갤러리 퍼즈)
 광주 국제 아트페어(갤러리 MOA)
 갤러리 MOA 기획 초대전 (파주)
 2013 2013 타이페이 2013 국제 아트페어(갤러리 츠바키/대만)
 2013 아트광주(갤러리 츠바키/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2013 아트 부산(갤러리츠바키/ 벅스코, 부산)
 일본 도쿄 roonee 갤러리 기획 초대 개인전
 "변화의 끝" (도쿄, 일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e-jeong갤러리 초대전(서울)
 2012 2012 광주 사진포럼(갤러리 우영, 광주)
 일본 사진 그룹 "야인" 기획전시
 (니가다 샤희간, 니가다, 일본)
 이설제 개인전 "From: Tokyo"
 (빛고을 시민 문화관 전시실, 광주)
 아트쇼 부산 2012(갤러리 츠바키/ 벅스코, 부산)
 2012 대구 아트페어(츠바키 갤러리/ 엑스코, 대구)
 해외 레지던시 기획사진전(지바, 일본)
 2011 [NHK 주최] 일본 도쿄 돔 아트페어 참여 2월 2일~13일
 갤러리 츠바키 개인전(도쿄, 일본)
 정 갤러리 기획 초대전 "모호전"(군산)
 2011 광주 국제 아트페어
 (갤러리츠바키/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2011 대구 국제 아트페어(갤러리츠바키/ 엑스코, 대구)
 2010 "블루칩 아티스트전" 뉴욕 맨하탄 un본부 특별전 작가 선정
 (신상갤러리, 서울)
 사진개인전 "관점의 전환" (원갤러리, 광주)
 [광주문화진흥위원회 지원] Gallery-D "관계를 넘는 소통전"
 2009 광주 국제 인권 퍼포먼스 _ 예술국장, 포토그래퍼
 2008 중국 송창 국제 미술제 한국관 초청작가
 (송창예술특구, 북경, 중국)
 2007 인도 주정부 Art Gallery Travancore 기획 2인전
 "Sound of Heart" (뉴델리, 인도)